

check ME up!

2026년 8월 2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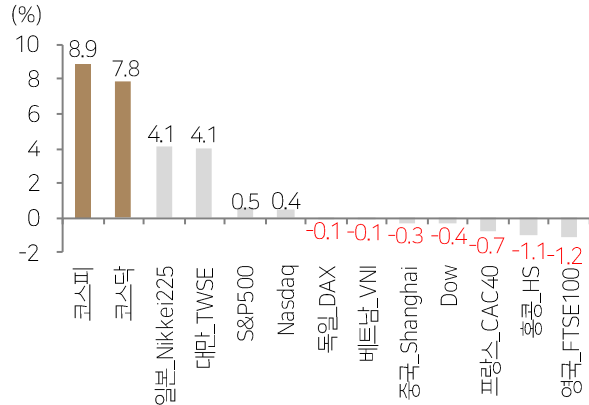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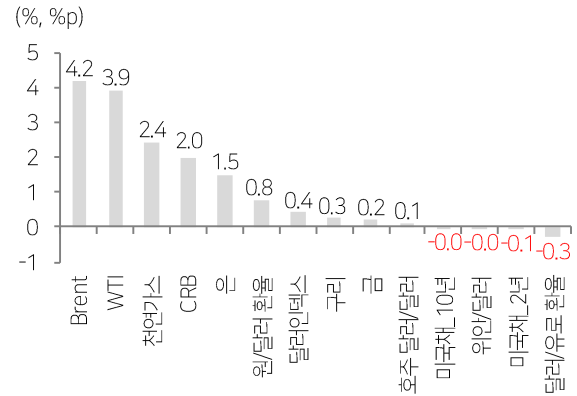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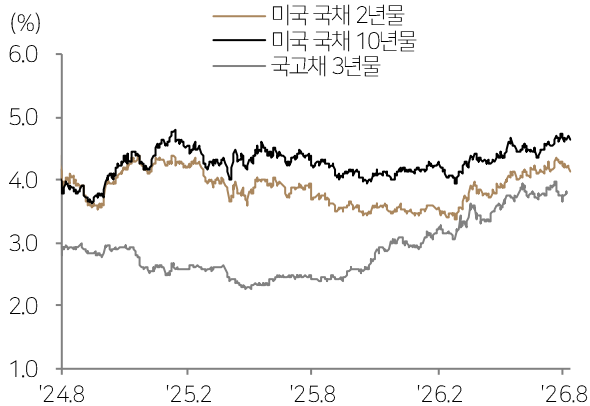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8/7일 대비 8/13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Note: 수익률은 8/7일 대비 8/13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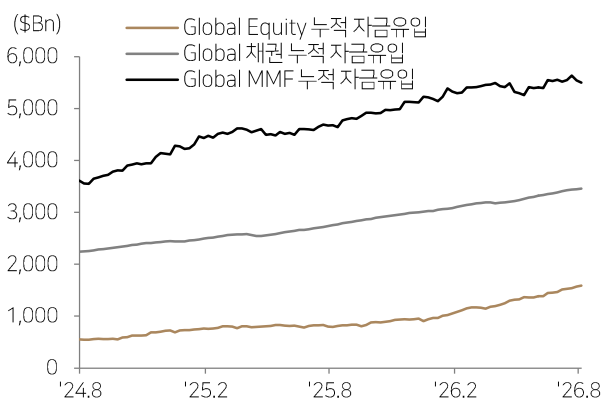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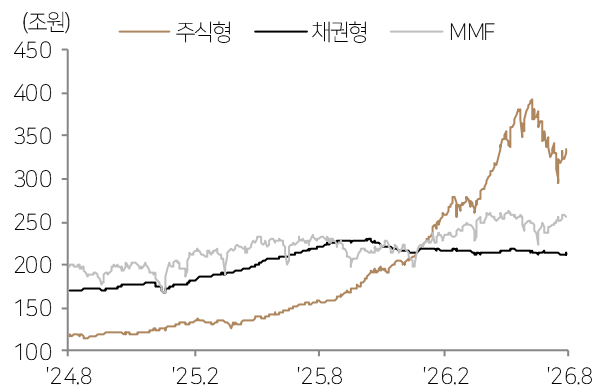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II. 경제지표 Preview

- 미국 고용지표에 이어 CP까지 일단 큰 탈 없이 통과한 상황.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결과. 특히 코어 지표들에서 주거, 에너지 제외 서비스, 상품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하고 있던 유가와 관세의 2차 효과에 대한 우려가 일단 완화된 상황
- 전일 일본의 PPI는 +7.2%로 예상보다 낮았고 전월비도 +0.1%에 그쳐 단기 물가 가속 우려는 완화. 그러나 엔화 기준 수입물가가 +29.1%에 달하는 등 엔저와 수입비용을 통한 물가 상방 압력은 강한 상태. 다음 주에는 CPI가 예정되어 있으며, 높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에 비해 소비자 부문으로의 전이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가속화될 경우 일본의 금리 인상을 자극하는 소재. 물가 상방 압력 확인 시 금리 및 환율 변동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8-17	일본	2분기(잠정) GDP	%qoq	2.1	1.8
2026-08-17	일본	7월(최종) 광공업생산	%yoy	-	4.2
2026-08-18	유로존	8월 ZEW 경기기대지수	Index	-	23.4
2026-08-18	미국	7월 수입물가지수	%yoy	-	7.1
2026-08-18	미국	7월 주택착공 건수	천건	1350	1427
2026-08-18	미국	7월 광공업생산	%mom	0.3	0.1
2026-08-19	유로존	7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2.9	2.9
2026-08-20	미국	7월 경기선행지수	%mom	0.1	-0.2
2026-08-21	한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8.6
2026-08-21	일본	7월 일본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2.0	1.6
2026-08-21	한국	8월 수출/입 20일간	%yoy	-	52.3/20.0
2026-08-21	미국	8월(잠정) S&P 글로벌 제조업 PMI	Index	53.7	53.9
2026-08-21	미국	8월(잠정) S&P 글로벌 서비스업/종합 PMI	Index	53.9/-	54.6/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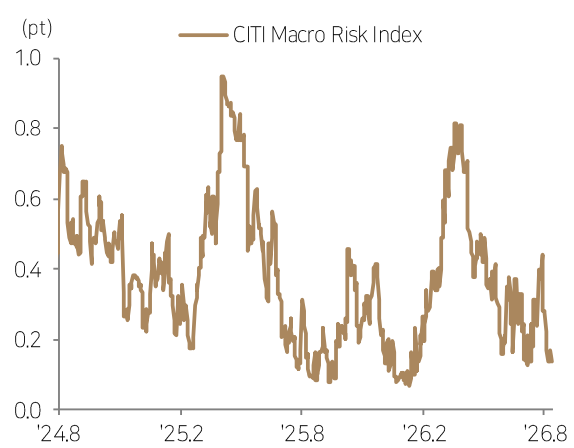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8/17	미국, 이란	상	한시적 휴전 만료	6/17 미국과 이란은 60일간의 한시적 휴전을 체결. 만료 기한이 오는 8/17로 예정. 파키스탄 등 중재국에서는 60~90일 연장 관측이 제기. 단, 이란 고위 소식통은 연장 논의 및 합의설을 전면 부인하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함 -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6/22 첫 후속 협상에서 베네토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산 원유 판매를 60일간 한시적으로 허용, 형식상 8/21 종료 예정. 다만 7월 초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재차 격화되며 철회된 바 있음(신규 거래는 7/7, 기존 거래는 7/17까지). 휴전 및 제재 완화 만료를 앞두고 양국 협상 추이 주시
8/19	미국	상	FOMC 의사록 공개	7월 회의 당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2016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소수의견 3인(25bp 인상, 베스 해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이 기록되며 인플레이션 및 정책 판단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 바 있음. 위시는 2% 물가 목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시그널과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음.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모호함이 높아진 상황 9월 15~16일 FOMC를 앞두고 매파 소수의견과 다수파의 근거, 위시 의장 발언 이후 확산된 정책 신뢰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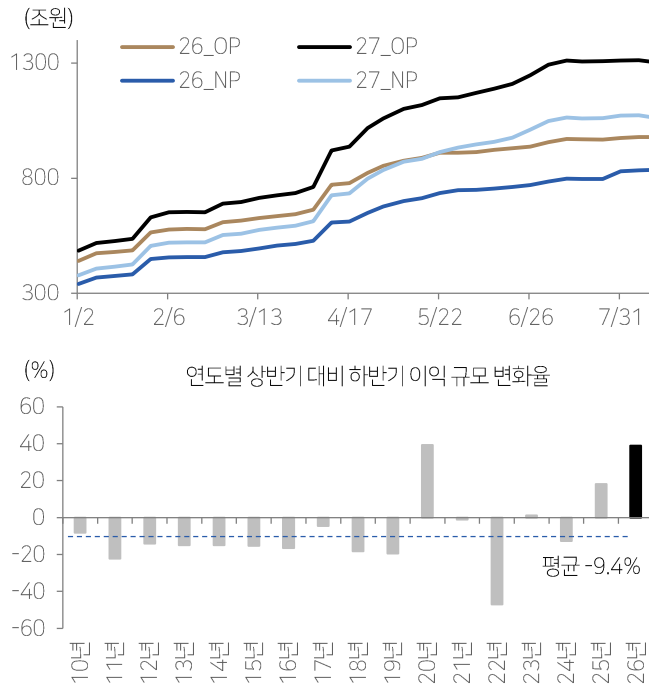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8/07~08/13) 증시 동향	- KOSPI(+8.9%), KOSDAQ(+7.8%) 상승. KOSPI는 IT하드웨어(+16.3%), 반도체(+14.5%), 비철,목재등(+9.0%)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필수소비재(-6.2%), 미디어,교육(-3.6%), 은행(-3.2%) 업종 하락. 코스피는 미국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인상 전망 후퇴로 상승 출발. 이후 유가·금리 부담으로 변동성 확대됐으나,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 대형주가 순환매 속에 강세로 전환하는 로테이션이 나타남.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된 가운데, 미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미국 AI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자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6,800선 회복 마감 - DOW(-0.4%) 하락, S&P500(+0.5%), NASDAQ(+0.4%) 상승. 미·이란 협상 교착에 따른 유가·금리 상승으로 위험선호 위축되며 약세 출발. 이후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CPI·PPI가 양호하게 발표되며 9월 금리인상 가능성 후퇴, 매수세 유입. 다만 연내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제한적 반등. 기술주는 AI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 영향으로 강세를 보임
차주 (08/17~08/21) 증시 전망	- 변동성 축소와 함께 반등 구간이 진행되고 있음. 8월 1주를 추가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지만, 금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수가 +8% 대의 반등을 시현하며 불안감이 완화. 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V-KOSPI가 50pt대로 하락하며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는 점, 주 중반 이후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무적 - 미국 고용지표와 CPI가 금리 인상 기대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표되면서 일단 부담은 경감. 당장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준은 아니나, 9월과 10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인상 가능성을 상회하며 단기적으로는 시중 금리 상단 제한 기대를 가져 볼 수 있는 상태. 한국 증시 이익 전망치는 기존 상향 추세에서 다소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나, 추가 이익 상향 없이도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 영역인 만큼 정상화 관점에서의 반등에 큰 제약 요소는 아닐 것으로 판단. 1차 목표는 7,300pt 내외로 추정하며, 상기 지수 대 진입 시까지는 반도체 비중 유지 필요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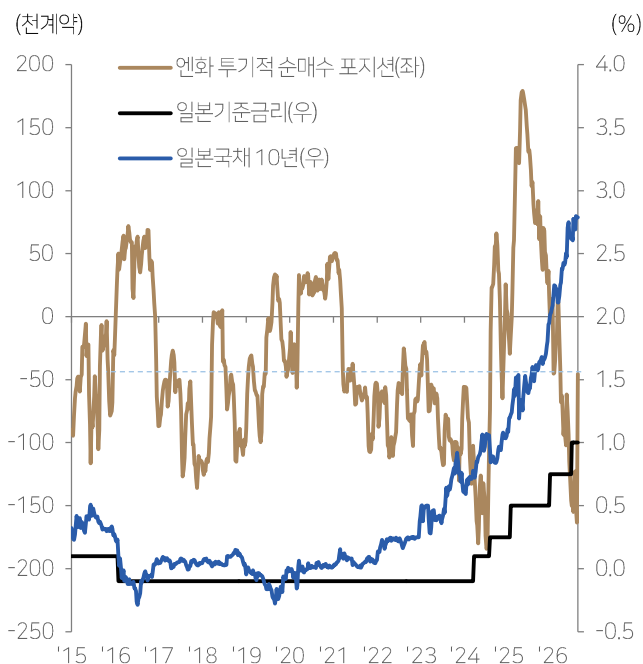
7월 급락에도 이익 전망 하향은 없었으나, 상향 조정 추세는 일단 둔화. 하반기 계절성도 인지해 둘 필요



Source: Quantiwise, 다올투자증권

-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979.2조원, 순이익은 836.2조원으로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음. 27년은 각각 1,306.9조원, 1,066.7조원에서 형성 중
- 7월 지수 급락 기간에도 이익 전망에 대해 크게 비관적인 시각이 유입되지 않은 점은 고무적이나 연중 이어지던 상향조정 흐름은 일단 둔화. 특히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일부 하향되는 모습도 확인
- 여전히 양호한 수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3분기 실적시즌 전후 추가적인 이익 전망치 개선 기대는 존재. 그러나 KOSPI 실적의 계절성을 보면,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이익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상반기 실현이익이 416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어 (Quantiwise 기준) 계절성 측면에서 부담이 있음. 더불어 환율 여건도 하반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익 전망치 추가 상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듯. 물론 현 수준에서 추가 이익 전망 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5배 대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영역으로 평가 가능

기준 금리 대비 크게 높아진 일본 국채 금리와 최근 큰 폭 되돌림이 발생한 엔화 투기적 매도 포지션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 등에 따라 영향이 있겠지만, 9월 혹은 10월 BOJ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금리 인상이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형성. 대표적 고민은 일본 금리의 추가 상승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 현재 일본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2.87% 수준까지 금리가 상승해 있음. 기준금리 대비 180bp 이상 이격이 존재. 금리 인상 후 가파른 연속 인상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지 않는다면, 25bp 인상만으로 급한 추가 상승을 이끌 수준으로 보긴 어려움
- 엔캐리 청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적으로 마일 공조 개입이 단행되면서 상당 수준의 투기적 엔 매도 물량 축소가 진행(계약 수: -16.3만→-4.5만)되어 부담은 다소 완화. 24년 엔 캐리 청산 당시 충격 발생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과 예상 외의 BOJ 인상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 영향. 현재 미국 금리의 급한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담은 다소 경감. 현 시점에서 포인트는 인상 자체보다 향후 인상 속도 가속화 우려가 제어될 수 있는지 여부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